

[정보·과학]

춤추는 로봇



조선이공대 정보통신과 졸업작품전

지난 23일까지 열린 조선이공대 정보통신과 학생들의 졸업작품전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색을 인식해 자신의 공을 치는 골프 로봇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로봇 등이 전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닷속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개발

해양부-포스코 손 잡았다

바닷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 개발이 가속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포스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근 전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해양부에서 지난 2005년부터 개발중인 바닷속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이 포스코가 개발중인 대기중 이산화탄소 분리·포집기술과 연계 개발될 수 있어 개발속도가 빨라지는 등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부는 포스코의 이산화탄소 분리·포집기술과 해양부의 바닷속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개발을 2012년까지 마무리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아울러 포스코가 개발중인 철강슬래그 활용기술을 해양생태 복원을 위한 해중립 조성 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양 기관은 기술개발 외에도 해양 기후변화 적응 대책과 기후변화 관련 해양정책과 제도 마련, 기후변화 관련 국제활동에 있어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유아들도 인터넷 중독…

야단부터 치면 역효과 흥미 끌 놀이 찾아줘라

주부 김미연(36·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7살난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 “작자 좀 해라”식의 잔소리를 하기 전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르는 탓이다. 아직 학령도 떼지 못한 5살난 동생도 형을 따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도 그 때 뿐이다. 효과는 없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건강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들이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만 3세~5세 유아의 51.4%가 인터넷 이용, 86.6%가 게임·오락 목적=초고속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인터넷 이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내놓은 ‘유아 및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만 3~5살 유아의 51.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아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86.6%가 게임·오락이다.

◇조기 인터넷 사용의 문제는=정아린(52) 광주 승원대 아동보육과 교수의 ‘유아의 컴퓨터게임 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출생 후 36개월 전부터 게임을 익히는 아이들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아의 경우 자극적 컴퓨터 게임에 익숙해지다보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3세~5세 절반 이상이 인터넷 이용

운동·산책 야외 활동 예방 큰 효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스스로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는 시기에 어릴 때부터 자극적 게임에 내성이 길리되면 시시해져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과파적,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정아린 교수는 “만 3세 이상 인구 10명 중 7명 이상(74.1%)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상황이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작용,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과몰입’ 예방 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아 교육 기관, 부모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아이들에게 건강한 인터넷 사용 습관 들이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 기관과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아이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기를 때까지 올바른 사용 습관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정 교수는 “맞벌이 부모 등으로 혼자 컴퓨터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만큼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유아 컴퓨터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컴퓨터 게임 활용과 역기능의 폐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광주대에서 광주지역 유아 교육기관 교사 2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매일 20분씩 12회에 걸쳐 교육이 가능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 교사 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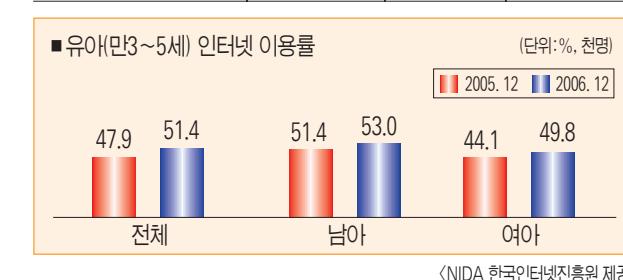
혹시 우리 아이도? 체크해 보세요	
내용	질 문
1	게임하느라 잠을 늦게 잔 적이 있다
2	게임을 오래 하여 눈이나 머리가 아픈 적이 있다
3	게임 때문에 식사를 제때 못하거나 늦게 한 적이 있다
4	게임하는 동안에 화장실 가는 것을 위기도 한다
5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6	면汇聚해야 할 다른 일이 있는데도 게임부터 하게 된다
7	여기서 간 대부분을 게임하며 보낸다
8	가족과 외출하거나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즐겁다
9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해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10	게임을 하지 않아도 자꾸 게임하고 있는 것 같다
11	주위의 사람이 게임 속에 나온다는 사람 같다
12	나도 게임 속의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다
13	게임하는 동중 방해를 받으면 짜증이 나서 참기 어렵다
14	게임하다가 형제나 친구 간에 대립기도 한다
15	게임하는 동안 잘 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조마조마 하다
16	게임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혼난다
17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하게 된다
18	게임을 하다가 “끄!”하고 멀리면 화가 나서 잠을 수 없다
19	게임을 하기 위해 서리면 어떠한 어려움도 겁낼 수 있다
20	다른데 게임하려고 미리 계획해둔다

<정아린 승원대 교수 제공>

전혀없다 -1점 | 거의 없다 - 2점 | 그저그렇다 - 3점 | 자주있다 - 4점 | 매우 자주 - 5점

(총점 100점)
1단계: 20~39점 컴퓨터게임 일반 이용자(자기 질서 가능)
2단계: 40~59점 컴퓨터게임 불법침재적 위험 이용자군: 괴물일 예방교육 필요
3단계: 60~79점 컴퓨터게임 고몰입 고위험 이용자군: 전문치료 대상: 괴물일 예방교육 필요
4단계: 80이상 컴퓨터 게임 괴물일(중독: 전문치료 시급)

■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수		
	(단위: %, 천명)	
민3세이상	74.1	51.4
민3~5세	74.8	34.910
민6세이상	790	34.120



또 가정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컴퓨터 대신 하지 못했던 일에 취미나 흥미를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운동이나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공놀이, 모래놀이 등 가족이 함께 몸을 직접 움직이는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거나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대안 활동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또 컴퓨터는 꼭 필요할 때만 켜 놓았다가 이용이 끝나면 전원을 끄고 게임을 하더라도 숙제·운동·독서 등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다 끝낸 후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하도록 한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움말> 정아린 승원대 아동보육과 교수

정보 TIP

KTF 수능통합배치표 서비스

KTF는 입시정보 전문업체 진학사, 김영일입시정보, 대성학원, 프리먼트와 제휴해 수능 등급에 따른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능 통합배치표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 가 수능 등급과 계열 정보를 입력하면 입시정보 전문업체들의 배치표를 한번에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다.

통합배치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TF 휴대전화에서 ‘* * 11’과 쇼(SHOW) 또는 매직엔(Magic®) 버튼을 눌러 교육 메뉴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 위쪽의 ‘수능통합배치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12월 31일까지 유무선 서비스 모두 정보이용료 없이 제공된다.

네이버 영화 검색 서비스 강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최근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 영화 관련 키워드 검색이 별도 영역을 통해 영화에 특화된 검색결과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화명이나 배우, 감독, 영화제, 영화사 등을 검색할 경우 통합검색에 영화 탭이 새롭게 추가되고 이 탭 영역에서는 관련 영화정보와 함께 영화에 한정된 이미지, 동영상, 뉴스, 지식IN 등 검색 결과가 보여진다고 네이버는 전했다. 또 네이버는 영화의 장르와 제작국가, 제작년도, 관람 등급 등의 조건을 통해 원하는 영화를 찾아주는 ‘영화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T끼리 T내는 요금제·팅 요금제…

SKT, 청소년 할인 혜택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뒤 광주시 휴대전화 판매점 등은 새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교체하려는 고3 학생들로 북적인다.

이 때 휴대전화 종류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할인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의 ‘T끼리 T내는 요금제’는 기본 요금제에 월 2천 500원을 추가로 내면 자사 가입자끼리 통화시 50%를 할인해주는 상품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내년 1월부터 1천원을 더 내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망내 할인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가입 후 망내 통화량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망내 통화 시간이 월 평균 30분을 넘어야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요금 할인제인 ‘팅 요금제’도 눈여겨볼만 하다. 신규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텅 고객에게도 ‘060’ 발신차단 서비스가 적용되고 다음달 1일부터 ‘팅 요금제’ 가입에 따른 요금 상한 대상에 무선 인터넷 데이터 통화료뿐 아니라 콘텐츠별로 부과되는 데이터 정보이용료가 포함된다.

특히 청소년 명의로 ‘팅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요금을 5천원, 1만원, 2만원, 4만원, 8만원, 10만원 등으로 세분화해 각 요금 구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문자 메시지로 부모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대상 할인 및 무선 인터넷 차단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전화 명의가 청소년 본인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인 명의로 가입했던 청소년들은 실명전환 캠페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이용기능장기호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최초립!!**
 확장 이전
이용자 개인자도
세일 30%
- 1.30까지

광주·전남
이용기능장기호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최초립!!**
 확장 이전
이용자 개인자도
세일 30%
- 1.30까지

광주·전남
이용기능장기호 대산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최초립!!**
 확장 이전
이용자 개인자도
세일 30%
- 1.30까지

한식전문점

뜰안재
 11월 24일 OPEN
 소주한 손 푸짐으로 성원하여 주의이 할사포리
 그 성원에 만족하여 한식 전문점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품질을 대비해 고시하겠습니다.

한식전문점

뜰안재
 11월 24일 OPEN
 소주한 손 푸짐으로 성원하여 주의이 할사포리
 그 성원에 만족하여 한식 전문점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품질을 대비해 고시겠습니다.

한식전문점

뜰안재
 11월 24일 OPEN
 소주한 손 푸짐으로 성원하여 주의이 할사포리
 그 성원에 만족하여 한식 전문점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품질을 대비해 고시겠습니다.